

한국의 성평등

야마자키 세이야

난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2학년 때 처음으로 찾아간 한국 여행에서 만나게 된 너무나 따뜻하고 친절하고 많은 추억 덕분에 한국 문화와 언어가 가진 매력에 더욱 빠지게 되고, 3학년 때 1년동안 유학을 하기로 했다. 유학을 하고나서부터는 내가 알게된 한국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스피치 대회에 참석하거나 발표 수업 때마다 한국과 관련된 주제를 고르고 소개해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학생활의 마무리를 할 겸 한국 문화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일 겸해서 한국의 성평등에 대한 논문을 쓰기로 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44개국 중 11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한다. 성격차지수란 경제 참여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의 분야에서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 수치화한 지수이다. 성격차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2가지의 약한 점이 있다. 첫째는 경제 참여 기회이다. 남녀 간 소득 차이는 남성이 5만2590달러인데 반해 여성은 2만454달러에 불과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관리자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는 정치 권한 부문이다. 정치 권한 부문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102위, 여성 각료 비율은 119위로 조사됐다고 한다. 정부나 기업들이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유리천장'을 깨지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여성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도 차별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하지만 요즘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나 직장에서 당한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SNS를 통해서 고백하는 미투운동이 전개되었고, 정치인이니 연예인을 비롯한 권력자로 인한 성폭행이 고발되고,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면 모두가 공감할 것 같은 남녀간의 불공평함이나 갈등을 그린 '82년생 김지영'이 승승장구로 100만부 이상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소설을 읽은 남성들은 '먼저 남자들이 읽어야 한다.', '누나야 친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우리 딸한테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여주는 반면에 남자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 등의 의견도 나와서 사회적 화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다. 내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비판하는 생각이 들면 안된다. 일본도 성격차지수에 따르면 110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는 성평등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는 남성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면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도 달라지고 집안일이나 육아를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82년생 김지영'에 공감하는 여성들이 줄었으면 좋겠다.